

글로벌 에너지 종합 중공업 다크호스 성진지오텍



“수출 백만 불에서 10년 만에 300배 성장”

1989년 설립된 성진지오텍(대표 신언수)은 울산 향토기업으로 전세계 에너지 시장과 조선 해양 시장 공략을 목표로 대형설비 제조 및 모듈화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수출중심 기업이다.

1982년 선박용 볼트·너트 업체로 출발한 성진지오텍은 1990년대 조선해양과 플랜트, 발전설비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며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1990년 3000만원에 불과했던 매출액이 이듬해 20억원으로 뛰었고 2001년 10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한 후 세계 플랜트 산업 호황에 힘입어 연속 신기록을 달성했다. 2005년 1817억원, 2006년 2148억원에 이어 2007년 3617억원, 지난 해에는 5201억원을 기록하며 고속성장을 진행 중이다. 수출 비중이 80% 이상인 성진지오텍은 2007년 2억불 수출탑을 수상했고 이어 2008년 3억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2009년 성진지오텍은 그 동안 수출 주무대였던 중동시장을 벗어나 석유자원의 신흥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으로 무대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주력사업인 석유화학 플랜트 제조에 집중하면서 담수설비의 꾸준한 고객 니즈에 부응하며 특히 대형모듈시장 및 캐나다 오일샌드 등에 더욱 공격적으로 나아갈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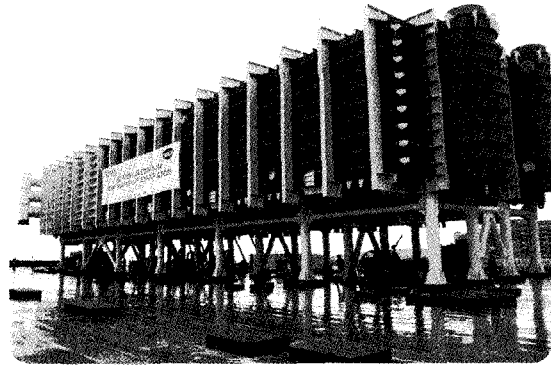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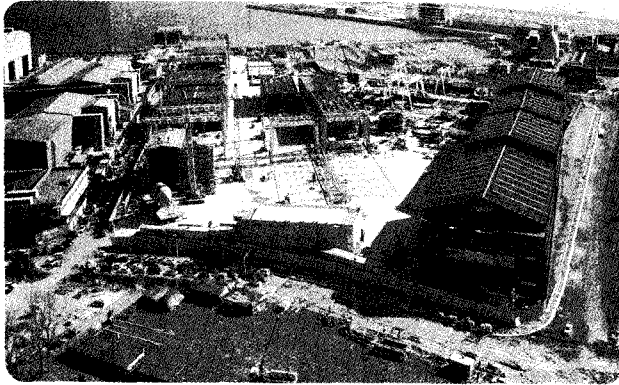
기술력으로 당당히 ‘세계 1등 기업’으로

성진지오텍은 2002년 광양LNG 복합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폐열회수설비(HRSG)와 프랑스 시렘사의

담수화 플랜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해외기업의 주목을 받았다. 이 프로젝트 수행에 이어 일본 치요다, 미 벡텔, 엑슨모빌 등 전세계 굴지의 글로벌사와의 잇따른 대규모 플랜트 사업 수주로 대형설비 전문업체로 급부상했다.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극심한 가운데





세계 물 부족 현상에 대비하여 대형 담수 플랜트 사업에 오랜 기간 공을 들여온 성진지오텍은 담수설비에서도 단연 세계 일등 기업이다.

무엇보다 프랑스 담수설비 전문업체인 시템사와 장기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동 이외의 업체는 성진지오텍이 유일한데 이는 성진지오텍이 담수화 설비관련 세계최고 수준의 제조·기술력 및 납품실적을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선진화된 제조공법과 대규모 설비를 갖추고 있는 성진지오텍의 5개 생산기지 중 세곳이 바다와 부두를 끼고 있어 1000톤 이상의 초대형 설비 제작은 물론 고객사의 니즈에 맞는 모듈화 제품 증대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3월 국내 중견기업으로는 처음으로 1000톤 급 초대형 플랜트를 세계 최단기간 제작해 성공적으로 출하함으로써 기술력과 생산력을 세계적으로 입증시켰다. 여기에 고부가가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강도 높은 내부혁신 운동과 선진화 기술도입 및 공격적인 글로벌 사업화가 더해져 연평균 30% 이상의 고속성장도 거둔할 것으로 보인다.

비전 실현을 향한 달음질은 계속된다

성진지오텍은 고부가가치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그에 부합하는 제작설비와 인력구성, 특수공법 확보를 통해 고수익 달성을 노리고 있다.

산업 필수요소인 부두를 포함한 입지적 우위와 플랜트, 조선 사업의 오랜 경험과 차별화된 기술적 역량 등 3박자를 고루 갖춘 성진지오텍은 2009년 기존사업인 플랜트, 발전, 해양플랜트, 철탑, 담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대형모듈 사업에 있어 꽃을 피우겠다는 목표로 올해 지난해 이상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다. 즉, 지속적인 플랜트 사업의 수주와 함께 대형모듈 사업을 확대하고, 조선해양사업의 품목추가 및 거래선의 다변화를 피하여 시장에서의 차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세계 산유국들이 내세우는 '자국의 산유개발 전략'에 맞춰 영업 네트워크의 현지화와 현지 경쟁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현지 영업 및 생산거점 확보 등 현지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으로 지구촌 에너지 개발 시장의 최대 수혜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다.

'글로벌 에너지 종합중공업'이라는 비전을 향해 2012년 매출 1조 달성 및 '세계 10대 플랜트 글로벌 메이커' 진입이라는 중기 목표 실현을 위해 오늘도 쉼 없이 달리고 있는 성진지오텍. 전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성진의 맹활약을 기대해 본다. KEA

기획홍보처 홍보팀 마효권 부장